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기 범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회화에 나타난 공간과
죽음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윤 혜 선

회화에 나타난 공간과
죽음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권 기 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윤 혜 선

인 준 서

윤혜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업에서 ‘공간’과 ‘죽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형성 배경과 과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에 상관없이 ‘공간’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그 경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여전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과거의 좋지 못한 기억으로 누군가는 강아지를 보며 좋아하지만, 본인에게는 두려운 것처럼 말이다. 또 기억은 희미하지만 무언가를 보았을 때의 기시감을 느낀 뒤로부터 연구자는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메모와 사진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나 느끼는 바와 같은 것들을 짧게 남기거나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사진을 찍음으로 최대한 기억의 휘발성을 막으려고 한다. 추억이 있던 옛 장소를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쳤을 때 생각이 떠올랐다.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장소는 연구자에게 익숙했던 공간이 낯선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남겼던 글과 이미지는 작업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남겨온 메모들 또한 연구자의 깊은 내면에 있었던 감정과 생각이었고 이를 회화로 표현하게 되었다.

논문의 구성은 I.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며, II-1장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으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공간과 죽음의 의미와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2장에서는 작품의 형성 과정을 1) 공간이 반영된 작업, 2) 죽음이 반영된 작업을 통해 연구자의 작업 형성 과정과 작품 설명에 대

하여 설명,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을 ‘공간’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표현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작업과정을 정리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형성 배경	4
1) 프로이트의 무의식	4
2) 공간과 죽음의 의미	6
2. 작품의 형성 과정	10
1) 공간이 반영된 작업	10
2) 죽음이 반영된 작업	19
III. 결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윤혜선, 〈흔적의 놀이터〉, 182.2x2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 【작품 2】 윤혜선, 〈그림자로부터〉, 112x145cm, 장지에 채색, 2015
- 【작품 3】 윤혜선, 〈쌓이다〉, 72x90cm, 장지에 연필, 유채, 2015
- 【작품 4】 윤혜선, 〈숨바꼭질〉, 162x12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 【작품 5】 윤혜선, 〈드로잉〉, 각 27x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 【작품 6】 윤혜선, 〈막 1〉, 40x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 【작품 7】 윤혜선, 〈틈과 틈 사이 1〉, 182x61cm, 테이프에 혼합재료, 2015
- 【작품 8】 윤혜선, 〈필름〉, 각 10.8x16.5cm, Gelatin Silver Print, 2015
- 【작품 9】 윤혜선, 〈소란한 침전〉, 84x2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 【작품 10】 윤혜선, 〈산편 1〉,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 【작품 11】 윤혜선, 〈산편 2〉,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 【작품 12】 윤혜선, 〈산편 3〉,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 【작품 13】 윤혜선, 〈낮과 밤 사이〉, 90x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14】 윤혜선, 〈모닥불은 해변을 밝히지〉, 90x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15】 윤혜선, 〈얼마나 많은 선〉, 90.2x1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16】 윤혜선, 〈더 아름다운 것〉, 50.2x1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17】 윤혜선, 〈세편 1〉, 60x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18】 윤혜선, 〈세편 2〉, 60x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I. 서 론

연구자의 작품들은 경험과 기억,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며 일상적인 습관이 작업의 바탕이 된다. 그 습관은 메모를 남기는 것과 이미지 수집이다. 연구자가 남기는 메모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고 개인적인 견해를 쓰거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 코멘트(Comment)를 남기기도 하고, 불현듯 떠오른 단어만을 나열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연구자가 수집하는 이미지들은 본인에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혹은 관심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Capture)를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상적 습관들로 작업을 시작한다.

연구자가 남긴 메모를 보면 ‘공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공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메모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그 안에서도 유독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가 지난 3년간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공간과 기억에 관한 그림, 죽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표현한 그림이 많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과정을 ‘공간’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행동은 우연적인 마주침에 의한 발견을 종종 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기억을 회상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익숙했던 공간에서 마주한 낯선 느낌이라든지, 처음 가는 길에도 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공간을 찾아냈을 때의 희열 등 그런 경험을 쫓아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한다. 공간에 들어서면 어떤 상상이든지 가능하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지, 여기에는 누가 살았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등

그 공간이 가진 역사에 대해 궁금하고 그 궁금함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공간을 단순한 장소로 보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죽어도 상관없어.” 연구자 주위의 몇 사람들이 꺼내는 이야기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들은 어느 현대인과 다를 것 없이 산다. 본인들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 주변 인물들과 연구자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보고 있노라면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우울증, 공황장애, 압박감, 불안 등 정신적 피로들이 결국 죽음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우리는 획일화 된 삶 속에서 성공을 바라며 산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사회 제도 안에서 정해진 최고만을 바라며 사는 이가 적지 않다. 연구자 또한 다르지 않다. 그러한 압박감이 죽음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본인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이다. 부모님과 의 다툼들이 많았었는데, 그 날은 유독 미술을 반대하던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손목에 칼을 대어봤다. 두 번째는 좀 더 강력했다. 그 기억을 회상하면 여전히 눈물부터 왈칵 쏟아져 나오는 기억이다. 그 시기의 본인의 다이어리에는 그 기억에 대한 것이 난무하다. 그때부터 가족보단 ‘나’가 더 중요해졌고,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빨리 잘 되어서 완벽한 독립과 분리를 하자’라는 생각에 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작업에 대한 집착 또한 심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지속은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더는 나를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점점 더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자리는 피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했기에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했

다,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 욕구 등이 나를 짓눌렀고 점점 지쳐갔다. 이때부터는 죽음을 언제든 와도 좋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엔 이유 없이 불안해서 잠을 못들은 날도 있었다. 잠 못 들었던 수많은 날 들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날은 아무리 기억을 곱씹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순서를 매겨가며 나열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한 기억들을 기점으로 연구자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고 이는 연구자의 작업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프로이트의 무의식

연구자의 작업은 공간에 대한 기억, 공간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주제들을 관통하는 것은 공포감, 불안감 등 불안정한 감정들과 그것들이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끝맺는 것은 본인의 무의식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자가 느끼는 무의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¹⁾의 정신분석학에서 찾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환자를 통해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는데,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일부만 노출된 채 떠다니는 빙산에 비유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을 의식(Conscious), 물 바로 밑에 잠겨있는 부분을 전의식(Preconscious), 물속의 큰 부분을 무의식(Unconscious)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지형이론(Topographic Theory)이라고 부른다. 의식은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 의해 움직인다.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통해 발생하고 순간의 사고, 지각, 느낌, 기억 등이 의식에 속한다. 전의식은 보통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기억이나 지식, 경험들이 있

1)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정신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모라비아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빈에서 김나지움과 의과대학을 탁월한 성적으로 마쳤다. 뛰어난 신경 병리학자였던 장 마르탱 사르코 밑에서 처음으로 히스테리 연구에 눈을 뜬 후, 요제프 브로이어(Josef Breuer)와 함께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창시했다. 그의 업적은 이성적인 사유의 배후에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발견으로 압축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 인간정신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사상가였으며,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히스테리 연구(Studies on Hysteria)』, 『토텐과 터부(Totem und Tabu)』, 『정신분석입문(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등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쾌락원리 너머』, 2013, 부북스.

다. 무의식은 억압된 생각이나 정서로 이루어지며 쉽게 알 수 없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되기 힘들어서 무의식을 이해 할 수 있으면 정신질환을 치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프로이트는 지형이론이 완벽하지 못함을 깨닫고, 1923년 지형이론(Topographic Theory)을 심화시킨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을 발표한다. 구조이론(Structural Theory)은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로 나눈다. 쾌락원칙은 이드를 움직이는 힘으로 욕구를 주장한다. 초자아는 억압하거나 이상을 추구하고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를 타협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아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무의식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다. 억압된 무의식은 쾌락원칙에 의해 움직이는데, 자아의 방어기제 때문에 쉽게 의식의 세계로 나올 수 없다.²⁾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통해 숨겨진 본질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연구자의 숨겨진 무의식은 공포, 불안으로 시작하여 죽음 충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무의식은 유년 시절의 기억과 현재를 살아가면서 받는 억압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또 이러한 증상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불안정함이 가져다주는 불안이 많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다.

불안감, 공포감에 기인한 무의식은 연구자의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정한 공간에 이끼라는 소재의 사용, 폐장된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풍경 등의 모습을 통해 무의식이 표현된다.

2)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2009, pp. 20-35.

2) 공간과 죽음의 의미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한 지하실,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진 옥상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태양광 패널, 이제는 그곳에 방문하는 자들의 온기만 느낄 수 있는 궁, 서로 얽히고설킨 풀들, 어느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곳들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공간은 다양하다.

공간은 형태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직접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느끼고, 알고 또 설명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장소감이나 장소 개념이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이 장소에 맥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은 그 의미를 특정한 장소들로부터 얻는다.³⁾

연구자에게는 그런 의미를 주는 장소들이 많다. 책상 아래, 몇 년의 한 번씩 여름 휴가지처럼 보냈던 이모들의 집, 특히나 제일 강렬한 기억을 가진 막내 이모가 사셨던 수유리 집의 다락방, 학창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원 앞의 가게들, 외할아버지댁의 앞바다, 낯선 여행지에 만난 장소들처럼 특정하고 특별한 장소들도 있고, 아주 일상적으로 동네를 걷다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장소들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연구자에게는 특별한 감상을 주는 존재로 ‘공간’이 된다. 그런 ‘공간’들에서 본인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옛 기억을 회상한다거나 여기는 어떤 장소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 장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의 생각과 상상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감상들은 연구자에게 좋은 영감이 된다.

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 39.

연구자에게 공간에 대한 기억은 “장소에 내재 되어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키케로의 말처럼⁴⁾ 깊게 새겨진 기억은 다시금 그때의 기억으로 고스란히 회상하게 하는 힘이 있다. 본인의 작업의 시발점이 된 유년 시절의 공간에 대한 기억은 어떤 장소들보다 더 강렬히 각인되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할아버지와 함께 자장면을 먹고 집 근처의 신학대학교 대지를 돌아다닌 기억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 거리를 매번 지나치는 길임에도 매번 들었던 감정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장소에 대한 기억은 그곳이 마치 특별한 장소처럼 만들게 했다.

본인은 죽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접했다. 부모님의 생업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시다 보니 자연스레 죽음을 보는 일이 많았다. 요즘에 와서는 기사 한 면을 장식하는 유명인들의 죽음으로 많이 접하게 된다. 죽음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그저 생명이 없어지는 이 현상을 프로이트는 “모든 생명의 목표는 죽음이다.”라고 말했다.⁶⁾ 이처럼 연구자가 생각하는 죽음 또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연구자가 직접 처음 목도한 것은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질병으로 오랜 시간 보냈던 할아버지는 가족이 모두 모였던 그 날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셨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거짓말처럼 다가왔다. 처음에는 실감을 못 했다. 어떤 것이든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장 가까웠던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연구자가 처음 자기 죽음을 생각한 뒤의 일이지만 그런데도 정말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의 멍함, 슬픔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4)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p. 391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8.11.08.

6)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쾌락원리 너머』, 부북스, 2013, p. 61.

실제로 죽음을 보게 된 이후로 본인은 죽음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본인의 청소년기 시절 겪었던 일화에서는 그저 죽음만이 그 상황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바로 옆에서 겪게 된 이후로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에 있어 본인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했다.

자살에 대하여 그리스부터 중세시대, 20세기, 그 이후까지 자살을 간혹 긍정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⁷⁾ 본인은 자살에 대해 미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것이 마치 최악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연구자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계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자 주변에서는 자살에 대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친구 중 몇 명이 그랬으며 본인이 2012년에 우연히 여행에서 만난 사람 또한 그랬다. 그 사람은 유럽에 여행 온 대부분 사람과 달랐다. 이른 시간에 움직이고 관광지를 보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데, 그는 오후 늦게 일어나 기타 하나를 가지고 파리의 센 강을 걸다가 기타 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우연히 길게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나이가 들면 추해지고 소위 꼰대가 되는 것이 너무 싫다. 그때쯤 자신은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말했지만, 본인에게는 어쩌다 생각이 날 정도로 인상 깊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데 이유가 감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신 있어 보이는 첫 경험이었다.

유명인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는 경우는 많았지만 2017년 12월 어느 날 접하게 되었던 한 연예인의 죽음은 연구자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본인이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포털

7) 임철규, 『죽음』, 한길사, 2012, p. 16.

사이트의 검색어에 그 연예인과 그룹명이 올라왔다. 그 연예인이 중태인지 사망인지 하는 기사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그리고 사망이 확정되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다음날 그의 친구를 통해 올라온 유서 전문을 보고서야 본인은 며칠 내내 눈물을 흘렸다. 가끔 본인이 즐겨 듣던 음악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남긴 유서가 본인은 이해가 되는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 마음이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연구자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 이유와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하여 말해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맞고 틀리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이란 생명의 소멸이라는 명확한 사실 하나 빼고는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죽음에 대하여 본인만의 생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괴롭고 지쳐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의 자리마저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감정이었고, 연구자는 그 감정을 화면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2. 작품의 형성 과정

1) 공간이 반영된 작업

궁에 들어서면 연구자는 그곳이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 알기에 ‘여기서 어떻게 왕이 움직였고 궁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꼭 특별한 공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길을 가다 만난 낯선 건물일 때도 있고, 사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짓다 만 건물이 되기도, 황량한 들판이 되기도 한다. 모든 공간은 연구자에게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연구자에게 기억이 공간을 중심으로 인식이 되고, 어떤 상상이든지 가능하다. 이는 연구자가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연구자는 특히 어떤 공간보다 폐허가 된 곳, 버려지거나 오래된 건물,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공간을 좋아한다.

연구자는 어느 날 우연하게도 익숙했던 공간이 시간이 흐른 뒤에 폐허가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고, 연구자가 공간에 대한 기억과 상상을 더듬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간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2015년의 작업의 주를 이루었다. 또 연구자 개인의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와의 공유를 위해 일상적인 것으로 확대하기 위해 [건물의 틈]으로 작업의 변화를 꾀했다.

[공간에 대한 기억]

공간에 대한 기억에 관한 작업은 2015년에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다. 2015년의 설날 즈음 유년 시절에 살았던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공간들에서 익숙하지만 어떤 낯섦을 느끼게 되었다. 폐허가 된 낡시 가게와 슈퍼, 본인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정문이 다른 곳으로 새롭게 생겼고 건물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초등학교의 놀이터의 놀이기구마저도 새로 도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생경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할머니 댁에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듯 곳곳이 탈락하고 균열이 일어난 지하실을 보면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연구자는 할머니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 댁은 단독주택의 형태로 지하실은 반지하로 된 구조였다. 현관문은 계단을 5~6개 정도 올라가야 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있는 복도를 통해 건물의 후면으로 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동네에는 또래 아이들이 적어 연구자의 오빠와 종종 숨바꼭질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숨바꼭질하게 되면 숨을 곳은 대충 정해져 있었다. 옥상의 태양광 패널 아래, 지하실, 올라가는 계단의 아래였다. 모두 연구자가 싫어하는 공간들이었다. 좁고 거미줄도 있는 어두운 공간들이었다. 여전히 그 공간들은 연구자에게 두려운 공간이다.

연구자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도 그러한 공간이 존재했는데, 구령대 아래의 창고였다. 그 창고에는 체육수업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수업 때문에 그곳에서 공이나 매트 등을 꺼내와야 했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다. 쿵쿵하고 먼지가 가득한 냄새가 마치 지하실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고학년이 수업을 받았던 건물의 뒤편으로 병설 유치원과 저학년이 수업을 받았던 건물의 옆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학교가 생길 때부터 지어진 것 같은 화장실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가기가 무서웠던 곳이었다. 유난히 그곳은 어둡고 칙칙한 것처럼 느껴져서 꼭 친구와 같이 가야 했던 곳이었다.

어린 시절 공간에 대한 기억은 연구자에게 있어 예전에는 익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마주한 곳에서 느낀 낯설은 처음 본 공간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작품 1】 윤혜선, 〈흔적의 놀이터〉, 182.2x2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1】은 작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연구자의 유년 시절 초등학교 앞에 있던 낚시용품을 팔던 가게가 세월이 지나 폐점을 하고 관리되지 못한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폐허의 모습을 한 그 공간은 연구자에게 익숙하지만 낯선 장소가 되었다. 그 공간은 연구자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재도색 된 놀이터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연구자는 멈춰진 낚시 가게의 모습과 놀이기구의 모습을 색으로 그려 내 버려진 공간에서 즐거운 그때를 멈춰진 시간 안에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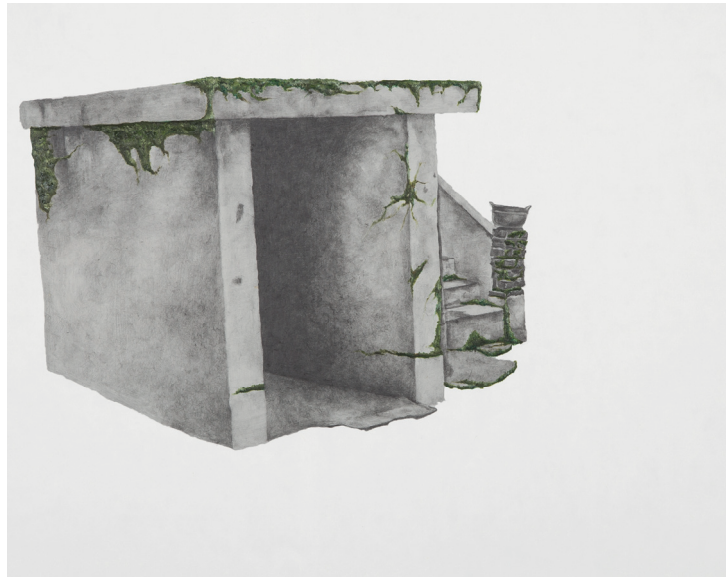


【작품 2】 윤혜선, <그림자로부터>, 112x145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2】는 연구자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있던 놀이기구 중 그네의 그림자를 따라 이끼의 모습만 표현해본 작품이다. 놀이기구 중에서 그네를 제일 좋아했다.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높이에서 앞과 뒤로 움직이는 그네는 무서워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지 못하는 본인에게 가장 큰 도약인 셈이었다.

【작품 1】과는 다르게 【작품 2】부터 이끼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에 표현하게 되었다. 이끼라는 이미지의 사용은 연구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의 ‘이끼’는 어쩐지 무섭기도 신기하

기도 한 존재였다. 초록색 짧은 잎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다발로 형성된 이끼는 대개 형태가 동글동글하다. 외관의 형태가 친숙하게 느껴져 만져보면 촉촉했고, 냄새를 맡으니 싱싱하면서도 괴괴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아주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 기분은 지하실이라는 공간을 떠올리게 했다. 습기가 차고 어두운 그런 공간에서만 자랄 것 같은 냄새를 지닌 이끼는 그렇게 본인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작품 3】 윤혜선, <쌓이다>, 72x90cm, 장지에 연필, 유채, 2015

【작품 3】은 할머니 덕의 2015년 지하실의 모습이다. 대략 20여 년이 지난 뒤의 갈라진 틈새에는 이끼나 이름 모를 풀들 같은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은 부서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공간을 여전히 두려워한다.



【작품 4】 윤혜선, 〈숨바꼭질〉, 162x12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4】는 연구자의 유년 시절 자택의 계단 아래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화면에서 초록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계단 아래에 떨어지는 그림자 부분을 면으로 나누어 시각화하고, 어두운 공간, 즉 공포와 같으므로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끼를 그려 냈다. 남은 여백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완전한 “밤”의 모습이다.

[건물의 틈]

건물의 틈으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선 작업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감정공유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래서 감상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감성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 대상을 확장하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리게 되었다.

연구자는 앞서 공간을 좋아한다고 말해왔는데, 산책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우연으로 마주치는 공간들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 사이다. 건물들이 양쪽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사람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곳은 꽃으로 단장이 되어있기도, 쓰레기가 마구 쌓이기도 하는 버려진 공간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또한 별어진 '틈'에 굉장히 시선을 많이 두는 편이다. 균열이 간 틈에서 자란 식물들이 먼저 눈길을 끈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크게 탈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주 멀쩡한 것들 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은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작품 5】 윤혜선, 〈드로잉〉, 각 27x25cm, 장지에 혼합재료, 2015

【작품 5】는 당시 살았던 동네에서 발견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드로잉으로 해본 작품이다.



【작품 6】 윤혜선, <막 1>, 40x4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작품 6】은 【작품 5】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크게 그려 낸 작품이다. 틈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작업으로 표현해본 작품이다. 연구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미지 공간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편이다. 바라보고 있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겁을 집어먹고 보는데, 호기심 반, 겁 반으로 그곳을 구경하듯 쳐다본다. 근데 들여다보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들이 생각했던 만큼 무섭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저 그곳을 마주치기 전의 나의 마음 상태가 그랬을 뿐이다. 언젠가 틈에 자란 식물을 보고 있을 때 ‘틈’이라는 공간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 7】 윤혜선, 〈틈과 틈 사이 1〉
182x61cm, 테이프에 혼합재료, 2015

【작품 7】은 건물의 틈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테이프를 길게 붙이고 그 위에 먹지로 건물을 그린 뒤 다시 떼어내어 색을 입힌다. 길게 찢어진 테이프를 다시 조각내어 본드를 이용해 겹치는 것을 반복적으로 붙여낸다. 생겨난 틈 사이에 모형재료로 된 이끼를 붙였다.

2) 죽음이 반영된 작업

죽음이라는 소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사 안에서 화가들에게 다루어졌다.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로 시작하여 16세기에 들어서 바니타스(Vanitas)라는 새로운 주제의 정물과 초상화가 유행하게 되었다.⁸⁾ 그리고 동시대 미술에서는 대표적으로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있다.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진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연구자는 본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자기 죽음을 생각한 것은 여러 번이었는데, 그중에서 실현된 것은 없으나 그 순간의 감정은 폭발적이었다.

연구자가 첫 번째로 스스로 죽음에 대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연구자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여느 때처럼 부모님과 다툼이 그날은 유독 심했다. 부모님은 연구자를 미술을 포기시켜야 했고 연구자는 꼭 그것을 쟁취했어야 했다. 한바탕의 싸움이 끝나고 그날 연구자는 울며 처음으로 ‘죽으면 후회하시겠지?’라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21살 겨울의 일이었다. 연구자 오빠와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일화이다. 본인의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에도 내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모든 것을 열었던 그 날은 그 날의 시간과 냄새와 장소를 기억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은 연구자를 이해하시지 않았다. 되려 오빠의 편을 들며 본인에게 더 많은 포용을 원하셨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본인을 이해하시지 않는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그 시기에 맞추어진 것처럼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끝이 났다. 아마도 그 시기에 곁에 있었던 대학 동기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겪고 연구자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외로워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가족과 친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두 번의 죽음 충동을 느끼고 이

8) 권용준, 『테마로 보는 서양미술』, 살림출판사, 2005, pp. 44-47.

겨내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인생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생긴 또 다른 굴레가 생겼다. 열심히 하는 연구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고, 본인 또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더 냉혹하게 변했다. 그런 식으로 몇 해를 보내다 보니 너무 지쳤다. 현재의 삶의 불안정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기대 등이 하루하루 괴롭혔다. 어느 날부터 본인은 그냥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어느 순간 죽음은 더는 무거운 존재가 아니었다. 연구자에게 자기 죽음이란 더 악을 쓰거나 눈물이 덩석 흐르거나 하는 등의 죽음을 넘어서 허무하고 공허함의 감정만 남아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졌다. 연구자는 그것이 연구자가 생각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했다.

2016년의 작업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작업을 구분 할 수 있다. 연구자로부터 시작한 점은 닮아있으나 주제나 표현방식이 달라졌다. 특히 죽음이 반영된 2016년 후반기의 작업은 연구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찰을 하게 했다. 이전의 감정들이 폭발적이고 죽음 충동이 강력했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죽음에 대하여 담담해졌다고 볼 수 있다.

[회전목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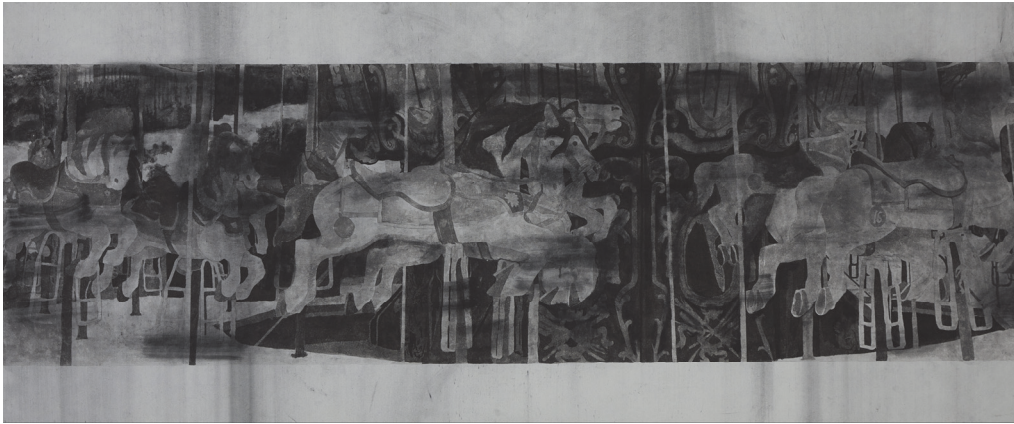
새로운 죽음 충동을 느낀 이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죽음의 이미지를 찾으려 폐장된 놀이공원을 찾았다. 거기서 만난 것들은 부서지고, 할퀴어진 흔적들이 난무했고 출사 장소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괴하고 무서운 공간이었을 것이다.



【작품 8】 윤혜선, <필름>, 각 10.8x16.5cm, Gelatin Silver Print, 2015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전목마를 놀이공원의 상징이자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 행복함을 느끼는 장소나 기구로 많이 떠올린다. 하지만 연구자는 회전목마가 놀이공원이 가진 어떤 기구보다도 가장 슬프다고 생각해왔다. 만나는 장소가 이별이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연구자가 회전목마를 소재로 가져온 이유이다.

망우역에 있는 용마랜드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놀이공원이다. 83년에 개장했고 199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지만, 재단장 하는 과정에서 IMF와 각종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뒤 2011년 놀이공원 허가 취소판정을 받으면서 완전히 폐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특한 분위기로 현재 많은 사람에게 출사 장소이자 뮤직 비디오, 드라마 등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구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폐장된 상태로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오래전 개장된 놀이공원이라 현재 대형 놀이공원처럼 큰 부지도 아니었고 놀이기구도 몇 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색이 탈락하고, 깨지고 죽은 식물들과 새로 자라나는 식물들의 영김이 한눈에 보아도 버려진 공간 같았다. 출사 장소로 사람들이 찾기에 곳곳에 채도색 된 모습을 갖춘 그곳에서의 회전목마는 다른 놀이기구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다. 떨어져 나간 말들, 깨지고 부서진 곳이 역력했다.



【작품 9】 윤혜선, 〈소란한 침전〉, 84x2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6

【작품 9】는 회전목마의 말이 달리는 부분을 담았다. 먹으로 전부를 그린 이유는 흑백 필름 카메라로 그곳을 담았던 이유가 가장 컸다. 연구자는 필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필름카메라를 주로 이용을 한다. 필름카메라는 현상하기 전까지 스스로가 무엇을 찍었는지, 어떤 프레임(Frame)으로 찍혔는지 알 수 없다. 선택해 찍었지만, 완전히 자신의 선택은 아니게 된다. 연구자는 필름카메라의 그런 점이 불완전하다고 느꼈고, 그 모습이 삶과 같아서 필름카메라로 기록을 했다.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없고 필름 자체를 재가공할 수 없는 그것이 디지털카메라와는 가장 다른 점이다.

상·하단의 여백과 목탄 가루가 흘러내린 표현방식은 흑백 필름의 느낌을 화면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고, 오래되고 퇴색된 그곳의 분위기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작품 10】 윤혜선, <산편 1>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작품 11】 윤혜선, <산편 2>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작품 12】 윤혜선, <산편 3>
91.2x117.4cm, 장지에 채색, 2016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은 멈춰진 회전목마의 부분을 담은 작품이다. 전체의 모습과 다르게 회전목마의 부분의 모습은 좀 더 기괴한 모습을 담아낸다고 생각했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 않은 화면으로 구성하여 불안한 감정을 극대화할 수 생각했다.

[미지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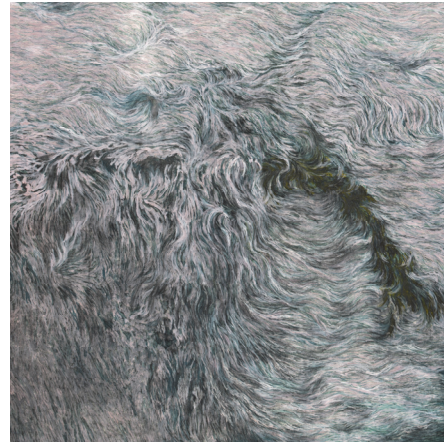
회전목마를 소재로 삼고 그리는 것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지게 했다. 본인 스스로 이것을 정말로 그리고 싶은지 묻게 되었다. 표현하기에 앞서 구상단계와 사전 조사는 정말 흥미로웠다. 하지만 표현방식에 있어서 작업과정이 연구자가 더 해석하거나 변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가 말하는 것을 표현해보자는 취지로 다시 이전의 작업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그동안 수집해온 이미지들을 찾아보니 녹진한 이끼가 돌 위에, 틈 사이에 번져나가고 있는 형상이나, 들판에 시들고 말라버린 풀들, 초록색인 만큼 생생하나 저들끼리 얽히고설킨 풀들 같은 이미지들이 많았다. 허무하고 공허한, 쓸쓸함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자는 수집된 이미지들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종이 위에 목탄을 사용해 즉흥적으로 그려나가고, 그 위에 분채나 과슈 같은 다양한 재료로 다시 쌓는 과정을 거듭한다. 그 과정을 통해 처음의 목탄으로 그렸던 것이 드러나기도, 지워지기도 하면서 화면이 채워진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미지의 풍경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미지의 풍경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본인의 작업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것, 연구자가 생각하는 죽음들을 다양한 시도와 변주를 통해 결국 본인 자신의 감정이 담담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13】 윤혜선, <낮과 밤 사이>, 90x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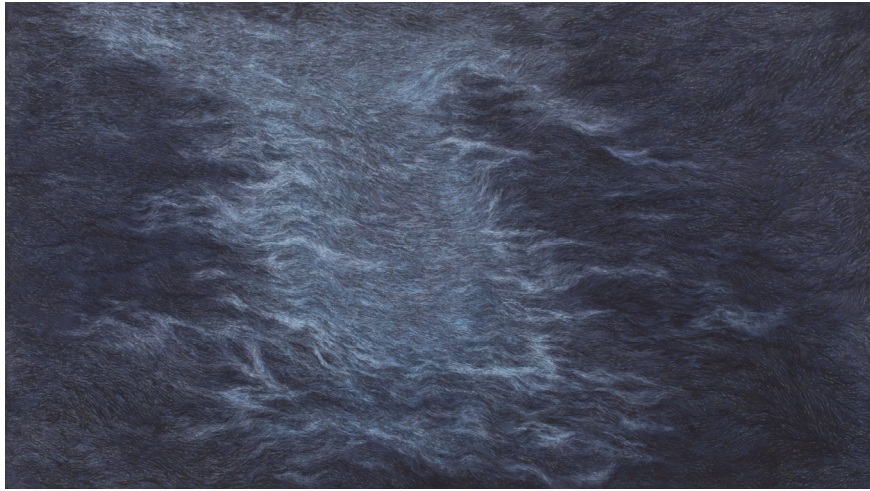


【작품 14】 윤혜선, <모닥불은 해변을 밝히지>, 90x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이끼가 담긴 풍경 사진을 통해 연구자가 생각하는 공허하고 허무한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연구자가 수집해온 이미지를 빌리되, 사진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방식이 아닌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3】, 【작품 14】 두 작품은 작업과정에서 사진-연구자 간의 거리 조절에 실패해 평면성이 강해졌다. 사진-연구자-화면 사이의 개입을 적게 하려고 했으나 사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작품 15】 윤혜선, 〈얼마나 많은 선〉, 90.2x1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5】는 앞서 언급되었던 작품과 달리 어떤 이미지보다는 연구자가 즉흥적으로 그려 낸 선들이 바탕이 되었다. 한 획씩 그어지는 선들을 따라 그려지는 대로 계속 쌓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렇게 완성된 화면은 높이나 숲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작품 16】 윤혜선, <더 아름다운 것>, 50.2x19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7】 윤혜선, <세편 1>
60x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8】 윤혜선, <세편 2>
60x6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작품 16】, 【작품 17】, 【작품 18】는 ‘죽음’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흰색을 사용했다. 흰 눈이 덮인 언덕처럼 보이기도,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화면으로 감상자가 더 쓸쓸하고 허무한 감정이 들 수 있도록 최대한 희미하고 뿌옇게 표현했다.

회전목마와 미지의 풍경으로 표현된 죽음의 이미지는 완전히 상반된다.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회전목마는 감상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는 있으나 연구자에게는 감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지의 풍

경을 통해 연구자는 감정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미지로 명료히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작업과정에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 작품이다

연구자는 공간에 대한 기억(2015), 건물의 틈(2016), 회전목마(2016), 미지의 풍경(2017) 작품들을 통해 그려진 의미와 작품의 시작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연구자가 공간과 기억, 죽음에 대한 생각하게 된 계기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공간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보다 강하게 남는다. 가구가 놓인 자리, 향기, 그 날의 날씨, 누군가와 함께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정보도 공간과 함께 그대로 기억 속에 박제되어버린다. 그렇게 어딘가에 있었던 기억이 익숙한 장소를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 환한 빛이 든 것처럼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그저 지나칠 수 있었던 거리의 한구석에도 눈으로 좇게 되는 행위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마도 연구자가 유년 시절의 특별한 장소에서 경험한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 연구자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본인만의 방법이 생겼고 그것을 표현해왔다.

저마다의 생채기를 가지고 시간을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연구자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상처들이 모여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지쳐 죽음을 생각해왔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왔던 죽음에 대하여 삶의 소멸만을 죽음이라 생각해왔던 연구자에게 앞으로 죽음에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대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의 작품은 외재적, 내재적 변화를 통해 발전해왔다. 연구자의 내재적인 감정들이나 기억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외재적으로는 여러 재료를 써보기도 하고, 표현방식을 달리해보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화면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3년간의 과정을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공간과 죽음에 대한 정의와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과정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작업과정에서 감상자와의 감정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본인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이 화면 안에서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3년간의 작업과정 안에서 많은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본 논문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객관화할 수 있었고 빈 화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음에 의의를 가지며 어둡고 칙칙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자는 3년간의 과정에서 반복을 거듭하며 체득한 표현방식으로 연구자가 피력하고 싶은 바를 그려 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임철규, 『죽음』, 한길사, 2012.
- 마이클 제이콥스, 이용승 역, 『지그문트 프로이트』, 학지사, 2007.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2009.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인순 역, 『쾌락원리 너머』, 부북스, 2013.
- 롤랑 바르트, 조광희 역, 『카메라 루시다』, 열화당, 1986.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존재와 시간』, 살림출판사, 2006.
- 앙리 베르그손, 김재희, 『물질과 기억』, 살림출판사, 2008.
-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 스티븐 쉰,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2004.
-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텝트,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 헬 포스터, 조주연 역, 『강박적 아름다움』, 아트북스, 2018.
- 가오싱젠, 박주은 역, 『창작에 대하여』, 돌베개, 2013.
- 권영준, 『테마로 보는 서양미술』, 살림출판사, 2005.
- 이케가미 히데히로, 송태욱 역, 『잔혹미술사』, 현암사, 2015.

학위논문

- 이주연, 「장소의 기억 그리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박주현, 「기억과 시간의 감성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김정옥,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한 회화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 <Encounter with 'N' - Gate> 시리즈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pace and death in painting

– based on my works –

Yun Hye Seon

Department of Fine Arts Oriental Pain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has a goal to research how express 'space' and 'death' in my work through background of formation and its process. This is based on my work from 2015 to 2017, regardless of timeline, it has been classified into two sections as 'space' and 'death'.

People have been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living and they have been affected by these experiences. I would also be affected by memories from the past. For instance, someone feels happy to see a puppy, however, I do not feel the same way as someone does because of bad memory I had in the past. Memory must be getting faded in someday though, since I had felt a sense of déjà vu as seeing something, I have habituated to try not to be faded of memory by writing down my thoughts and taking pictures that have given me an inspiration. For example, I found myself that I reminisced about

a certain memory when I walk through the place I used to by chance. The space that has been changed from the past that I remember, even though I was used to this space, I totally feel new in the same place, and my work is based on note and image which I recorded in the past. And what I have written was my thoughts and feelings from my internal conscious, and I would like to express these as my own work.

The construction of the thesis is that I.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II-1.searching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my work with definition and meaning of space, death, and unconscious of Freud. II-2.analyzing and explaining the process of formation of my work 1) work reflected in space, 2) work reflected in death, about my work processing and explanation of my work.

This thesis to consider method of expression and to figure how it has been changing with my work processing as involved two subjects as 'space' and 'death', and to find a certain meaning by arranging the process of my own work.